

여론조사꽃 제30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3_03

ARS+CATI

제28차 ARS조사

제13차 CATI조사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제30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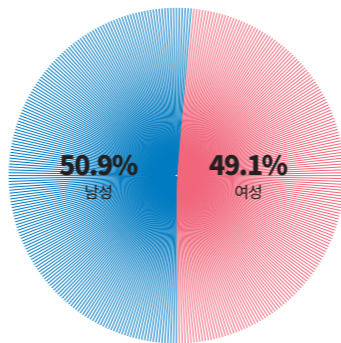
ARS & CATI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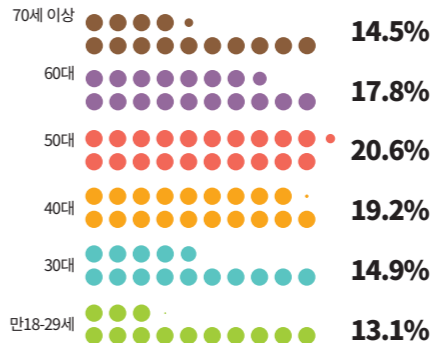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7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2월 28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3.4% [총 통화시도 29,807명]
조사기간	2023년 3월 10일 ~ 3월 11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7	100.0%	1,007	100.0%	1.00
성별	남성	513	50.9	499	49.6	0.97
	여성	494	49.1	508	50.4	1.03
연령	만18~29세	132	13.1	166	16.5	1.26
	30대	150	14.9	151	15.0	1.01
	40대	193	19.2	184	18.3	0.95
	50대	207	20.6	196	19.5	0.95
	60대	179	17.8	170	16.9	0.95
	70세 이상	146	14.5	140	13.9	0.96
지역	서울	200	19.9	189	18.8	0.95
	인천·경기	317	31.5	320	31.8	1.01
	대전·세종·충청	102	10.1	106	10.5	1.04
	광주·전라	102	10.1	99	9.8	0.97
	대구·경북	95	9.4	99	9.8	1.04
	부산·울산·경남	149	14.8	150	14.9	1.01
	강원·제주	42	4.2	44	4.4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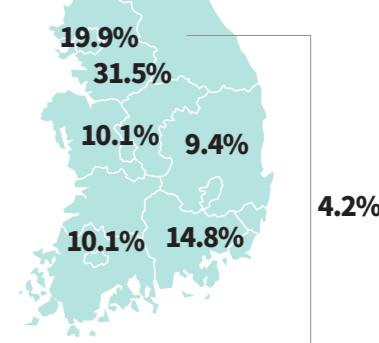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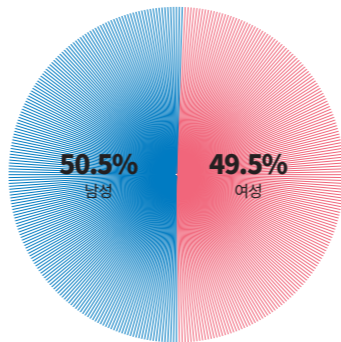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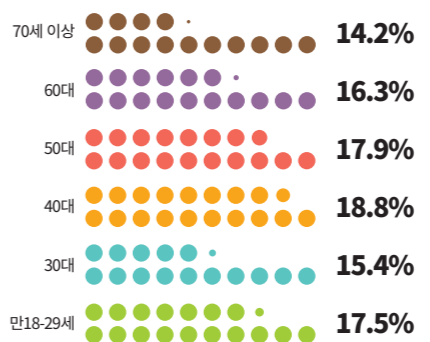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2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2월 28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6.8% [총 통화시도 6,092명]
조사기간	2023년 3월 10일 ~ 3월 11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24	100.0%	1,024	100.0%	1.00
성별	남성	517	50.5	508	49.6	0.98
	여성	507	49.5	516	50.4	1.02
연령	만18~29세	179	17.5	170	16.6	0.95
	30대	158	15.4	153	14.9	0.97
	40대	192	18.8	189	18.5	0.98
	50대	183	17.9	199	19.4	1.09
	60대	167	16.3	172	16.8	1.03
	70세 이상	145	14.2	141	13.8	0.97
지역	서울	190	18.6	193	18.8	1.02
	인천·경기	320	31.3	326	31.8	1.02
	대전·세종·충청	119	11.6	108	10.5	0.91
	광주·전라	104	10.2	99	9.7	0.95
	대구·경북	98	9.6	100	9.8	1.02
	부산·울산·경남	150	14.6	153	14.9	1.02
	강원·제주	43	4.2	45	4.4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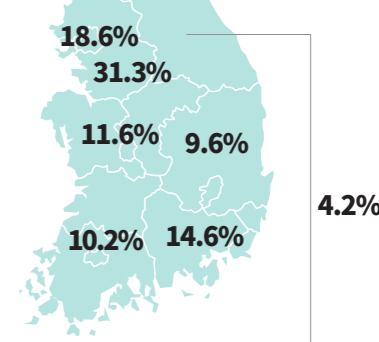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할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관 108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에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여론조사꽃 제30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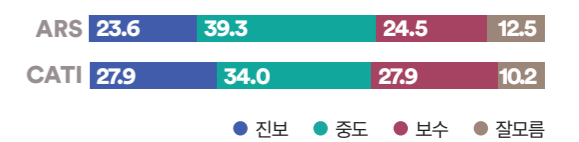
국정지표

ARS & CATI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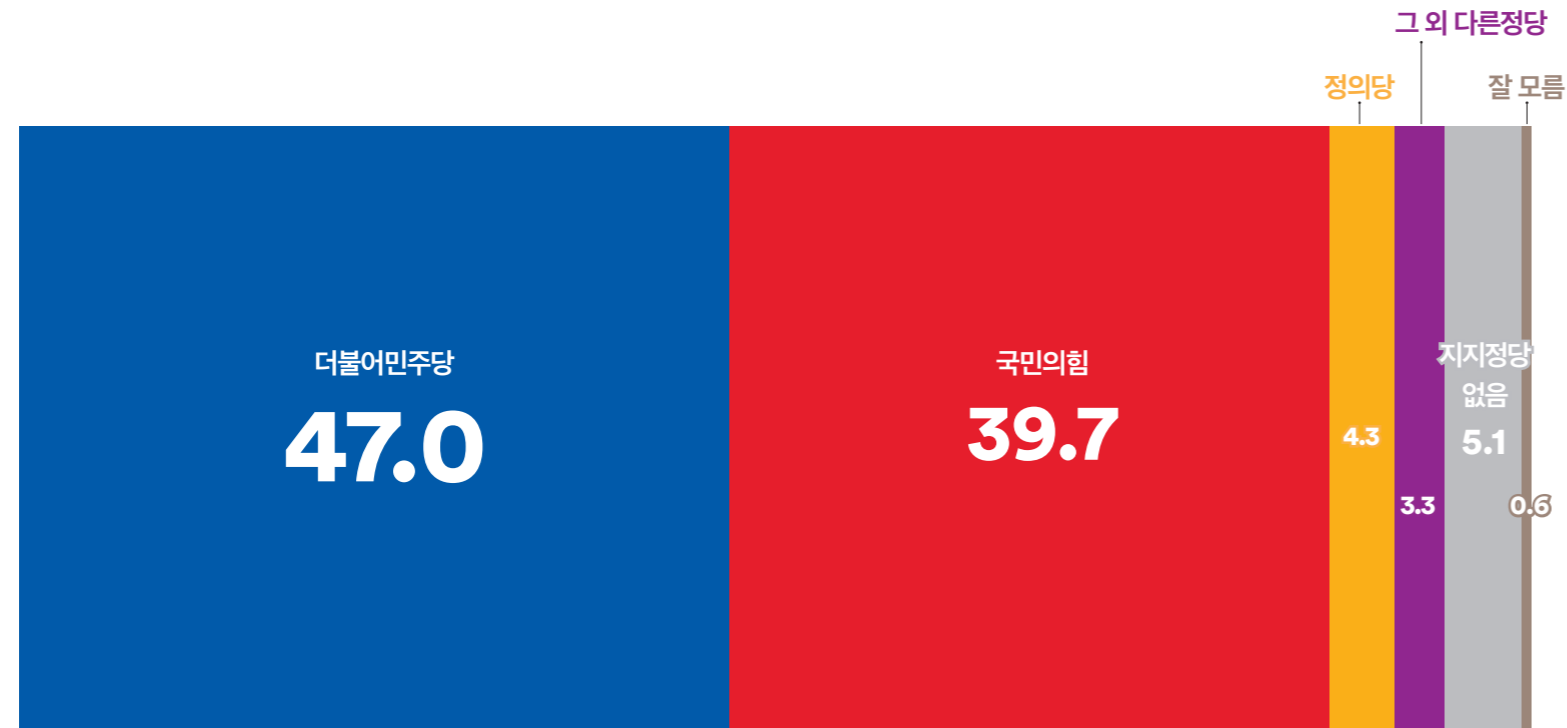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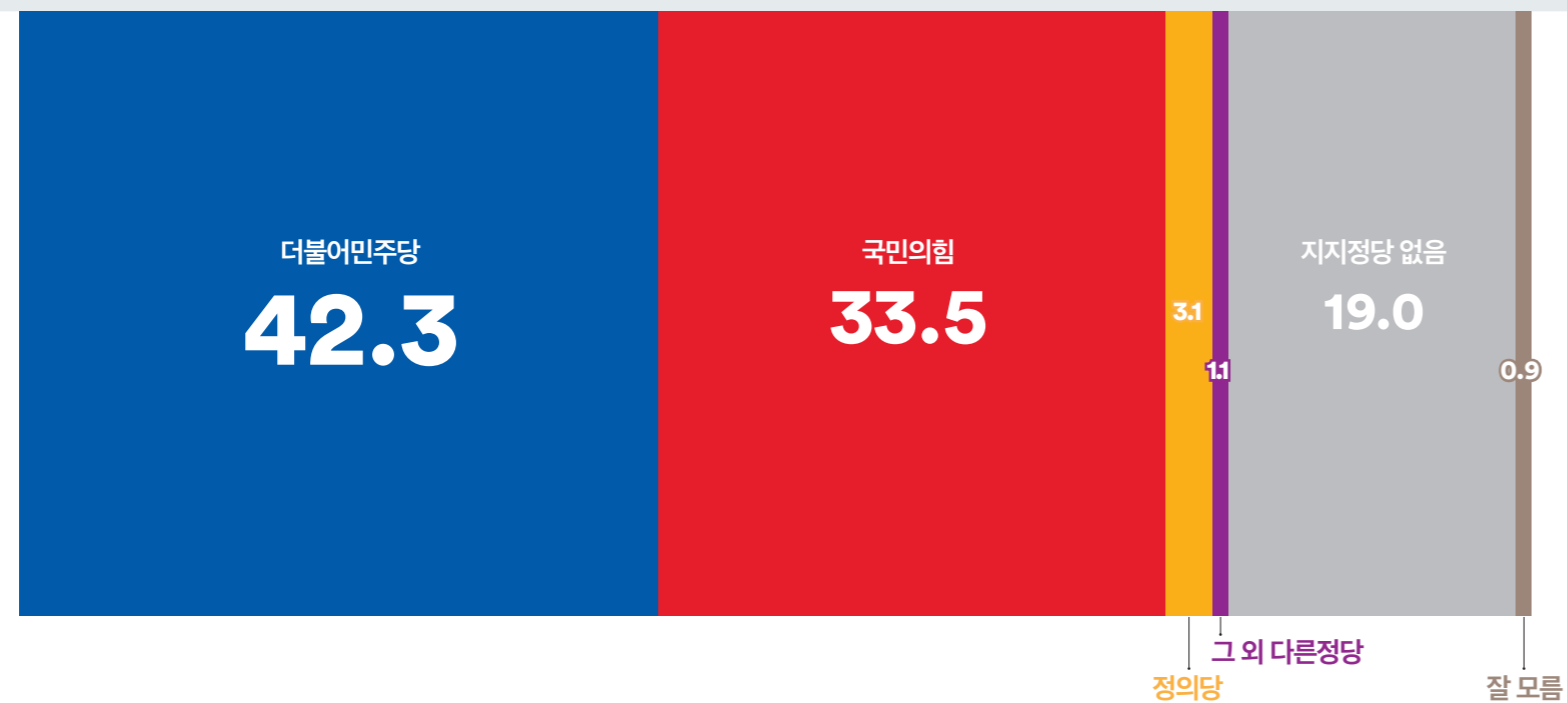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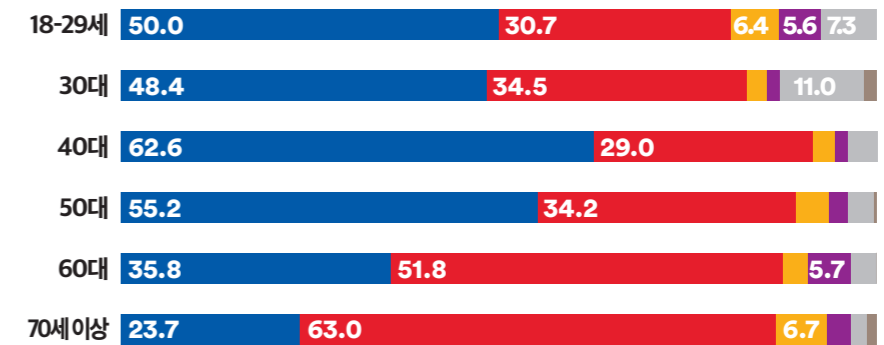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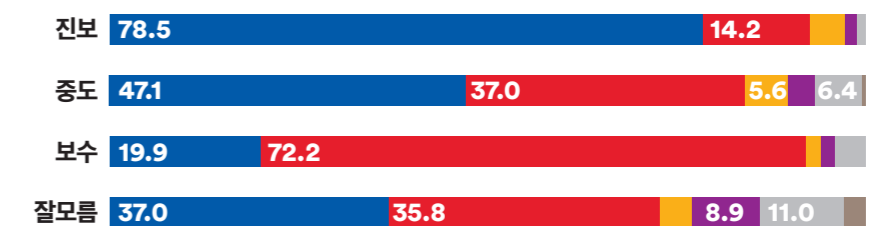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7%p, 국민의힘 3.2%p 하락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9%p 상승, 국민의힘 1.5%p 하락
 더불어민주당은 경인·호남권, 40대·50대, 여성, 진보층·중도층에서 우세 / TK·70대·보수층에서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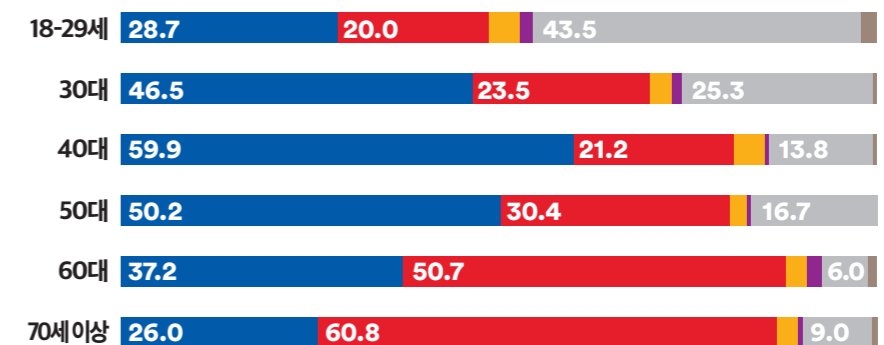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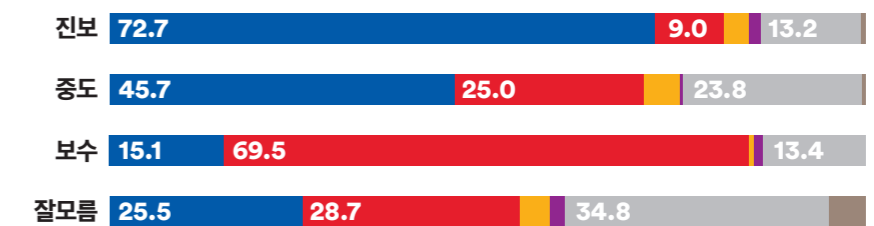
이념성향



연령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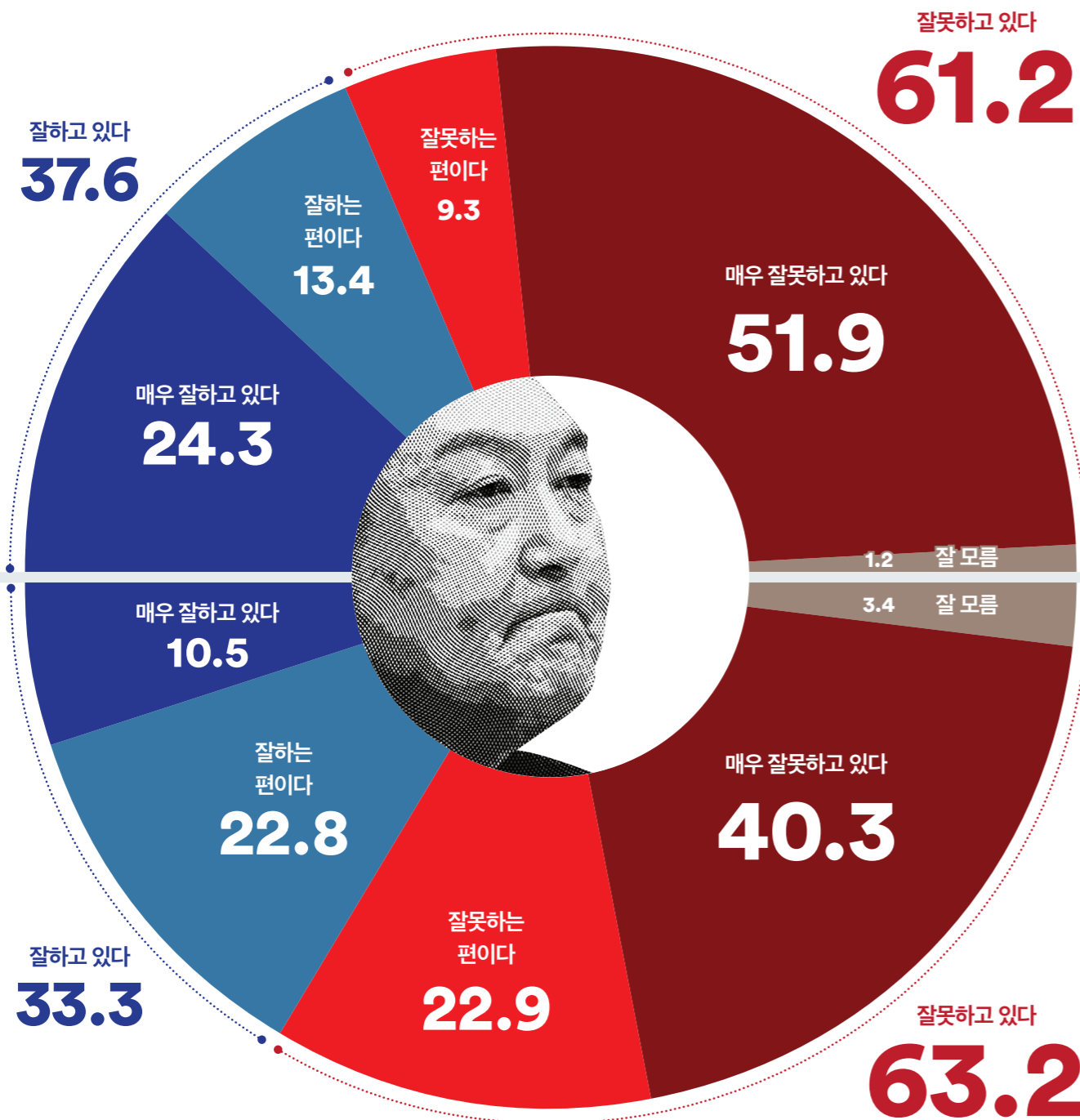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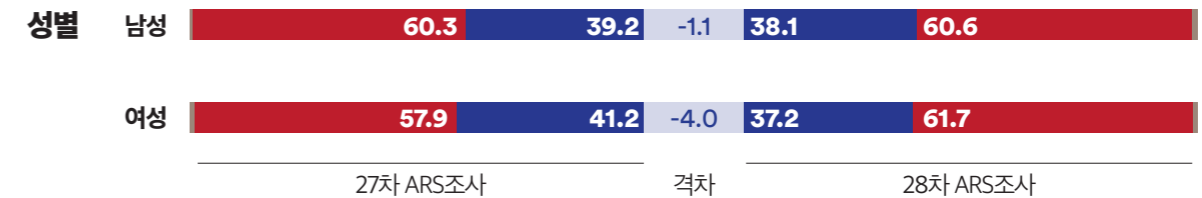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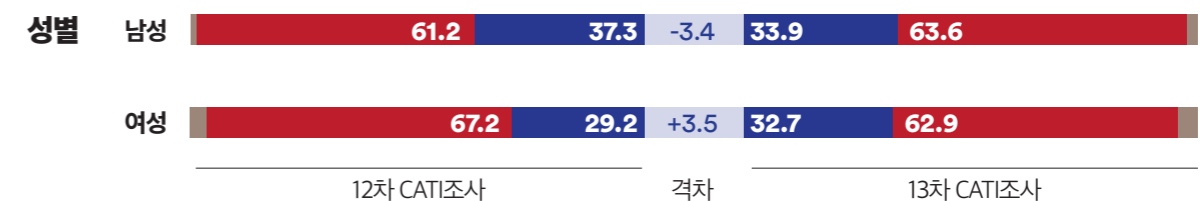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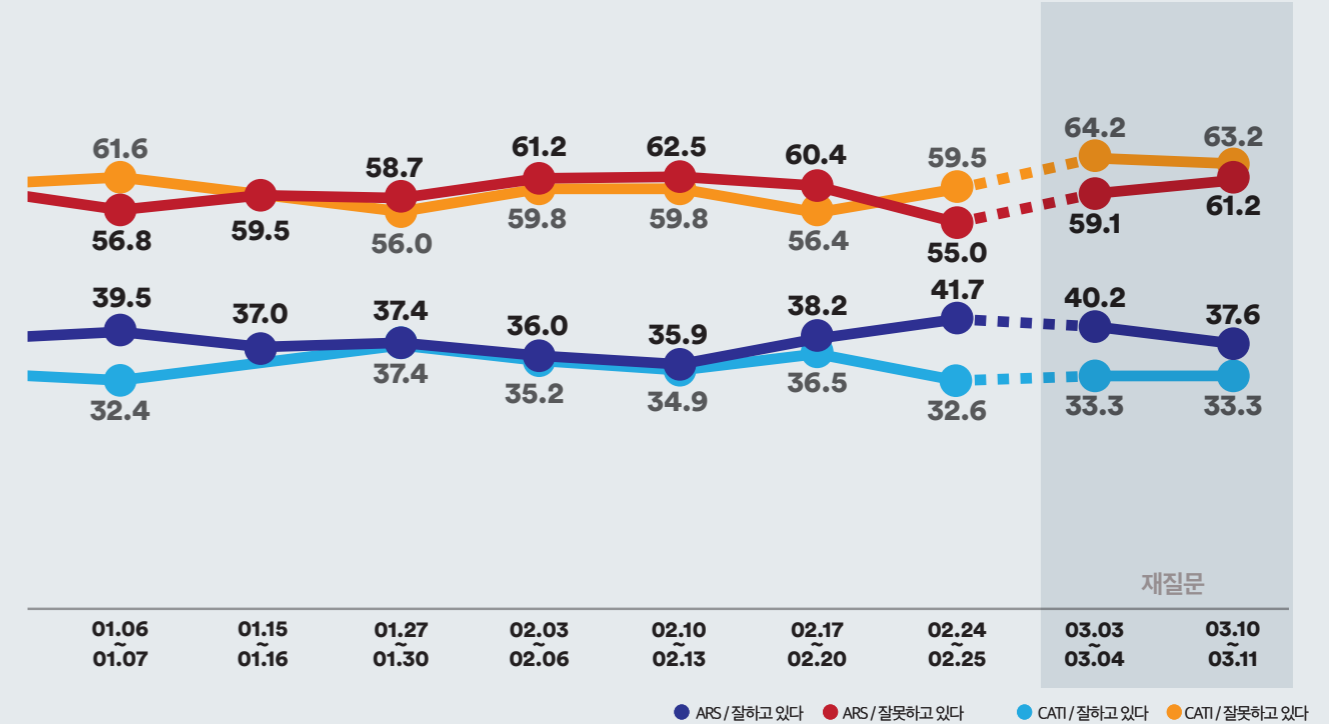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2.6%p 감소, 부정평가 2.1%p 증가
 지난 CATI 조사 대비 부정평가 1.0%p 감소
 CATI조사는 긍부정 격차 29.9%p, ARS 조사는 23.6%p로 부정평가 우세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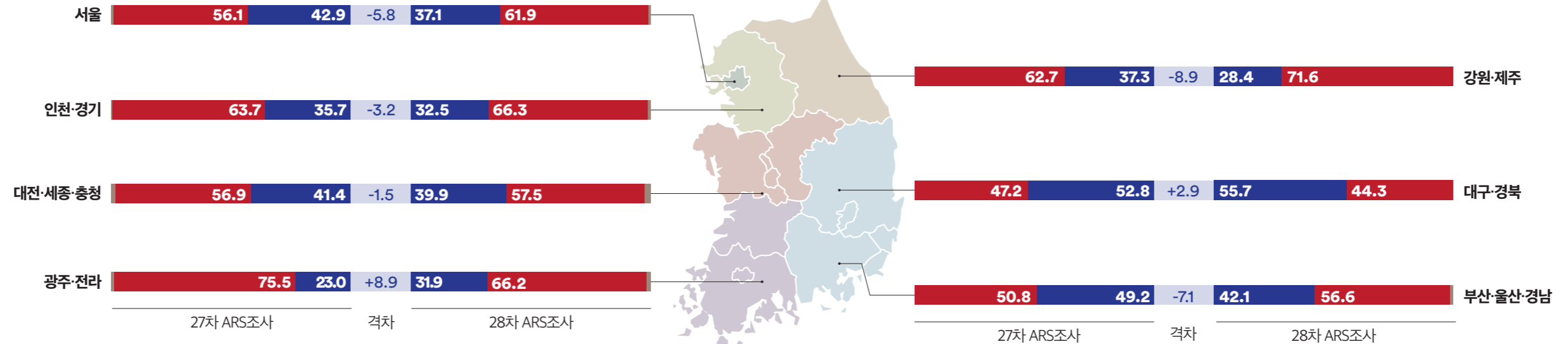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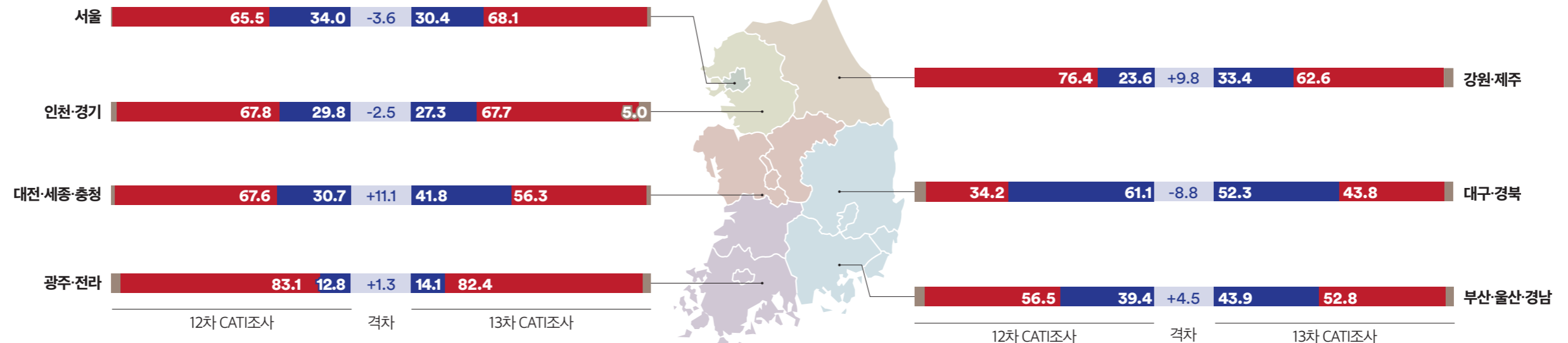
ARS

권역별



CATI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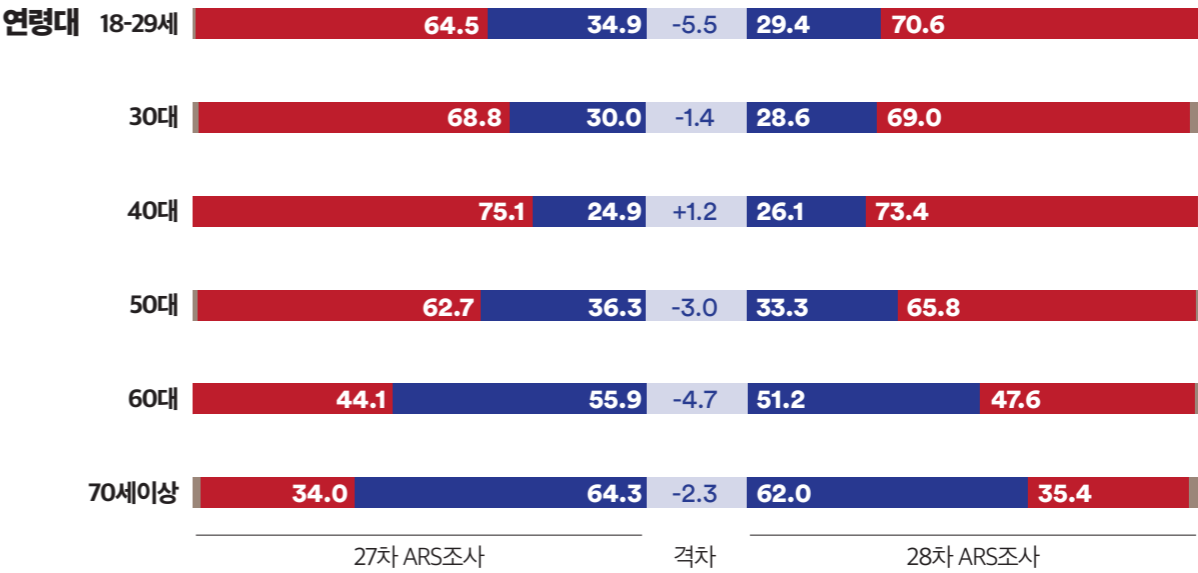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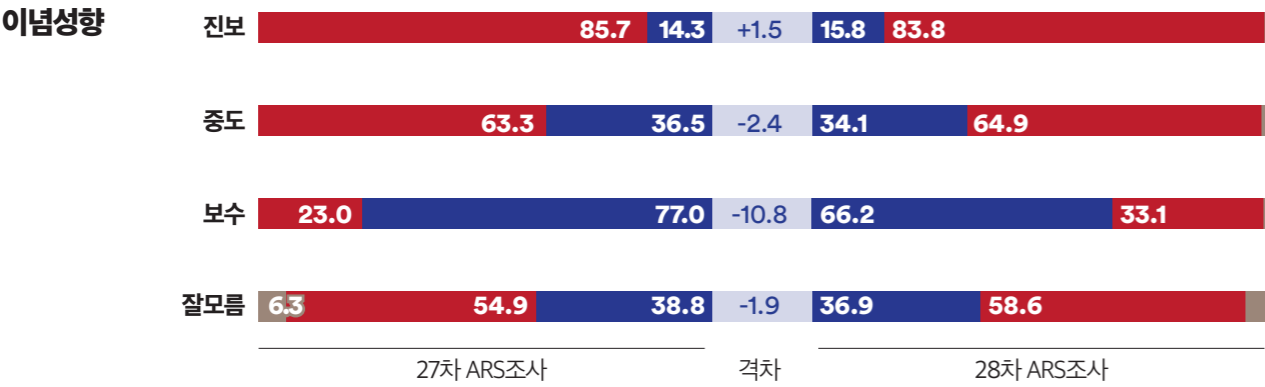
격차 | 잘하고 있다 | 잘못하고 있다 | 모르겠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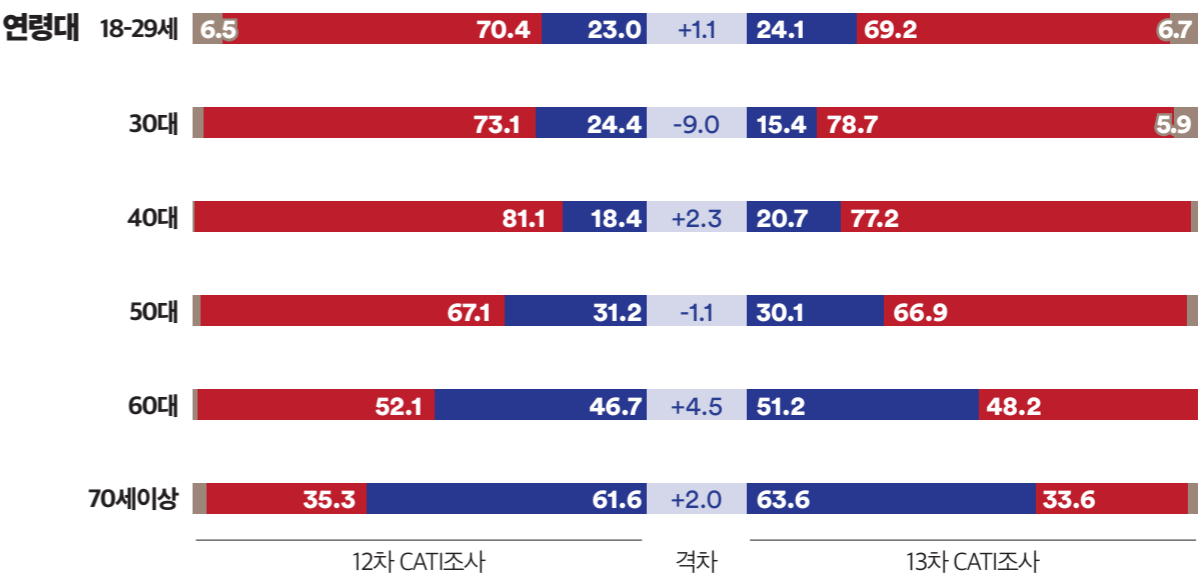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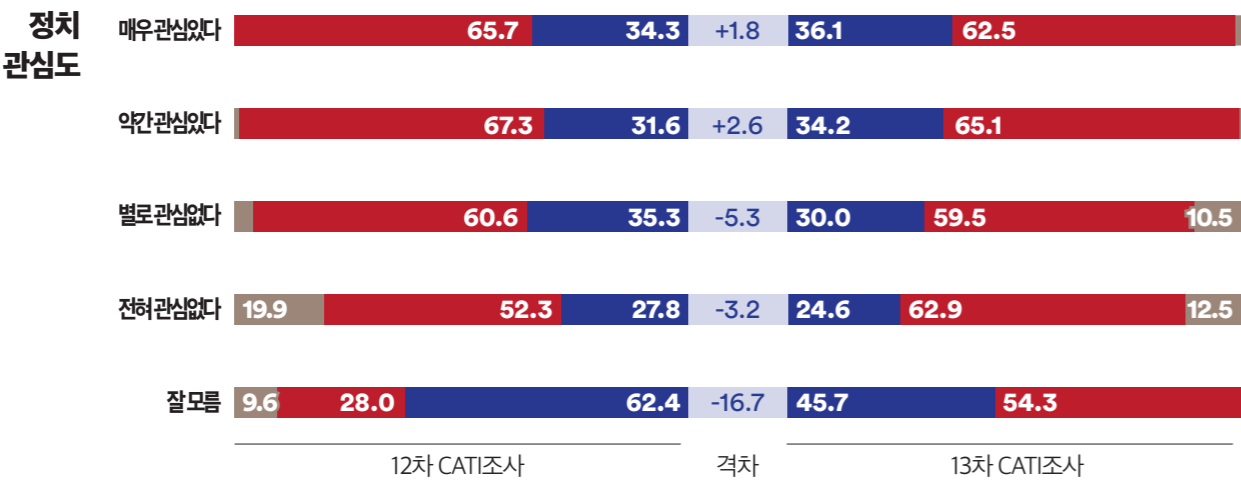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CATI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30차 정레이론조사 보고서

피해자가 반대하는 제3자 변제안

ARS & CATI / CATI

정치·사회 현안	제3자 변제안 평가
	제3자 변제안 평가: 굴욕외교이자 친일행위
	제3자 변제안 평가: 배임이자 뇌물공여
	제3자 변제안 평가: 삼권분립 위배
	일본에 대한 윤 정부의 태도
	피해자가 반대하는 제3자 변제안 강행 이유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라’고 한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지난 3월 6일 윤 정부는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게서 돈을 모아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제3자 변제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독도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 윤 정부가 일본에 어떻게 대응할 것 같은지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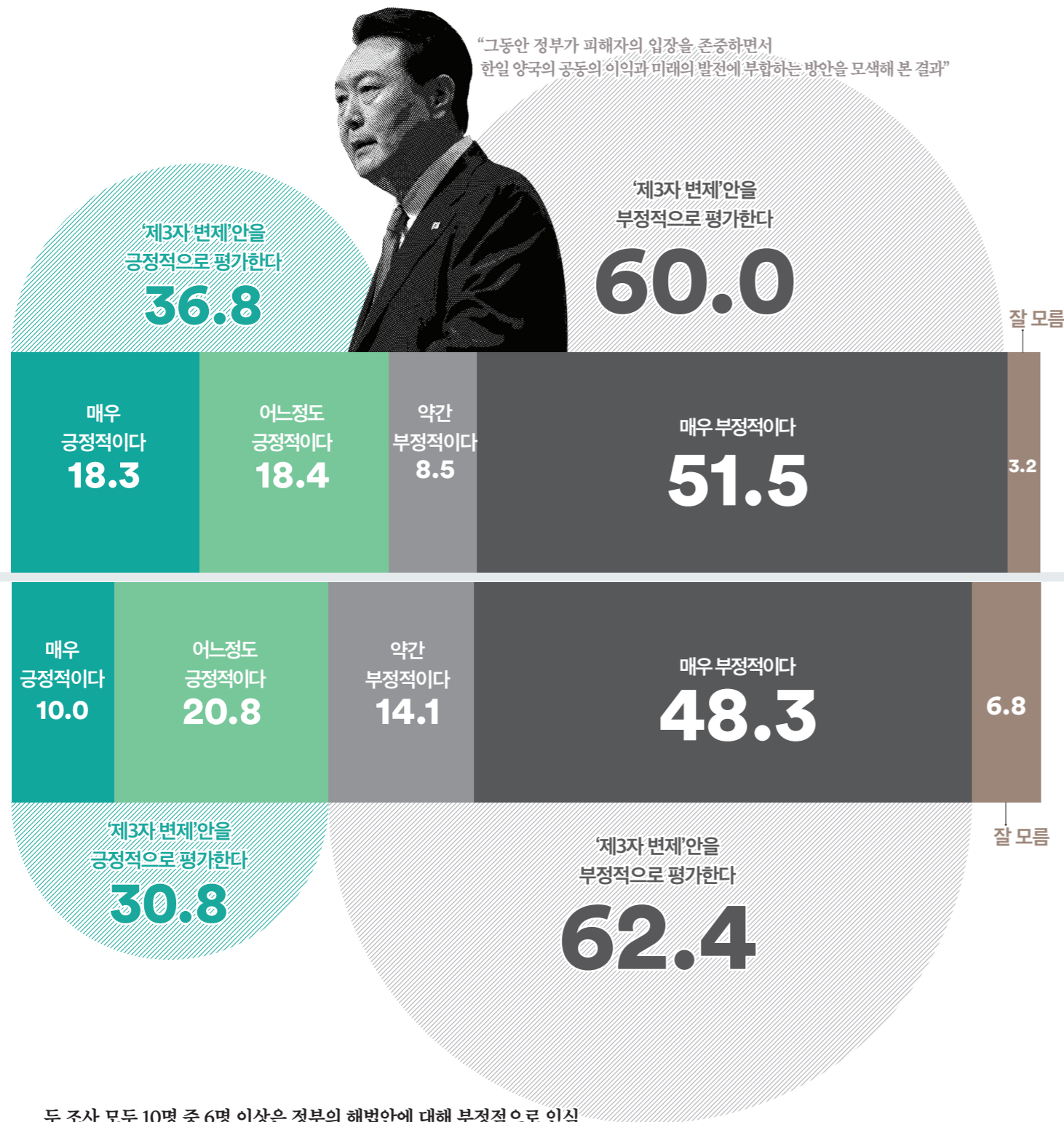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제3자 변제안 평가

Q. 윤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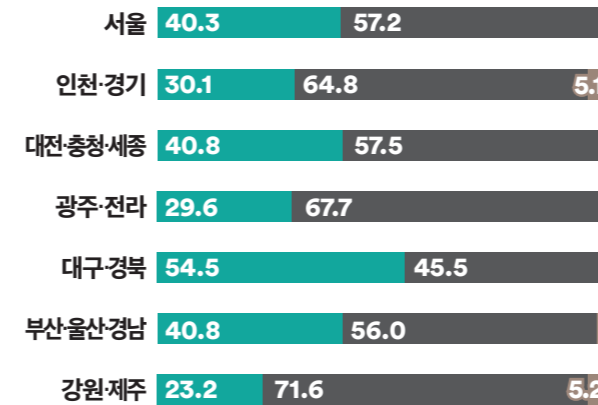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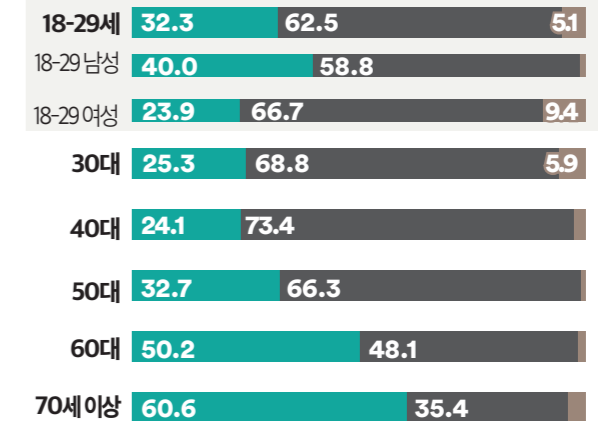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의 해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수도권과 호남, 50대 이하 응답층 및 모든 성별에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부정적’이란 응답 우세 무당층·중도층에서도 ‘부정적’이란 응답이 우세한 반면 70대 이상은 ‘긍정적’이란 응답이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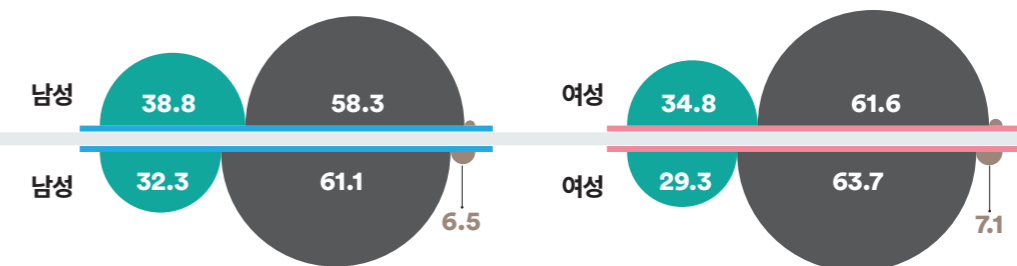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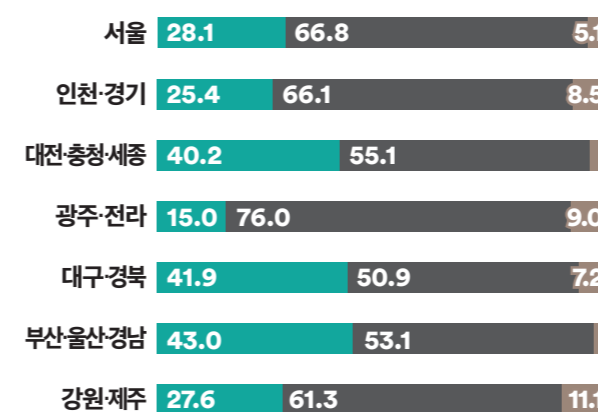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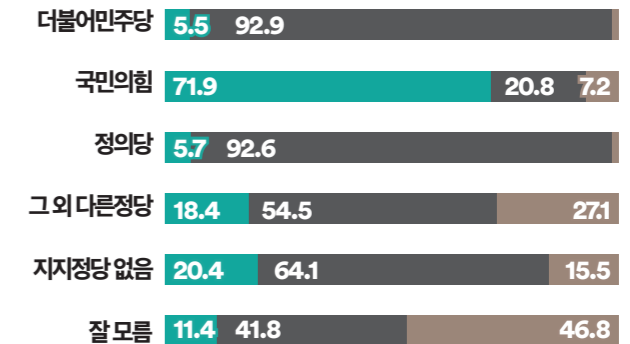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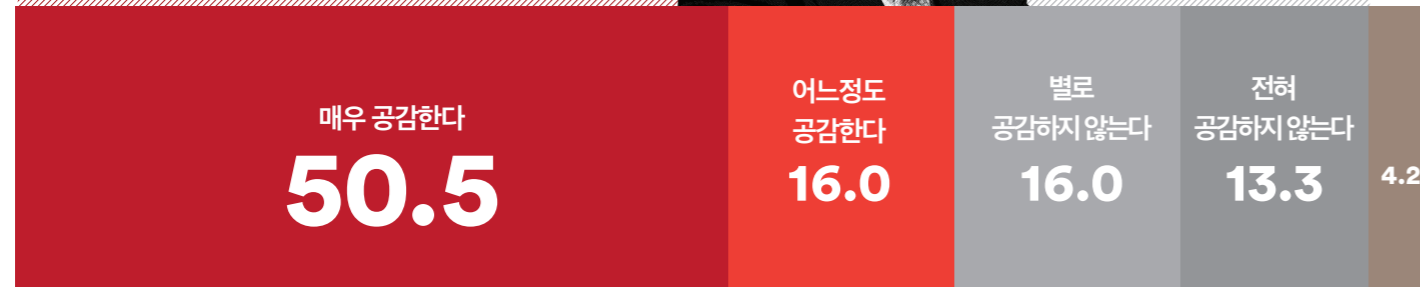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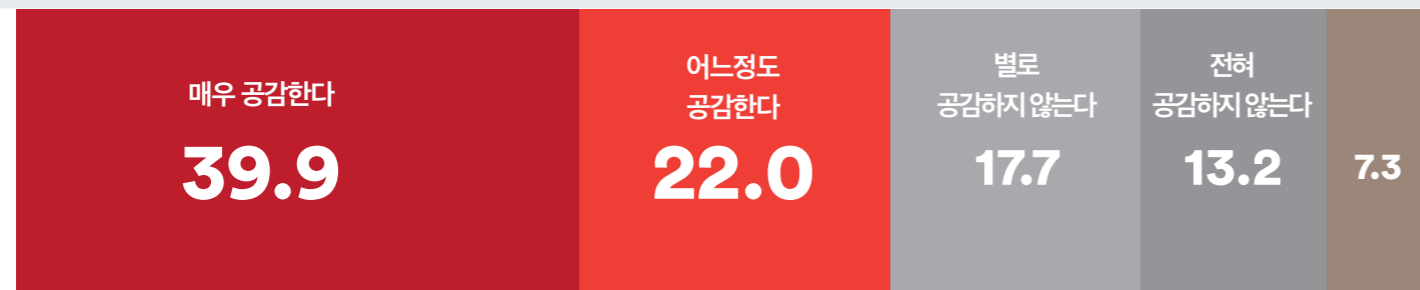
제3자 변제안 평가: 굴욕외교 및 친일행위

Q. 전범 기업의 사과 없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굴욕외교이자 친일 행위라는 의견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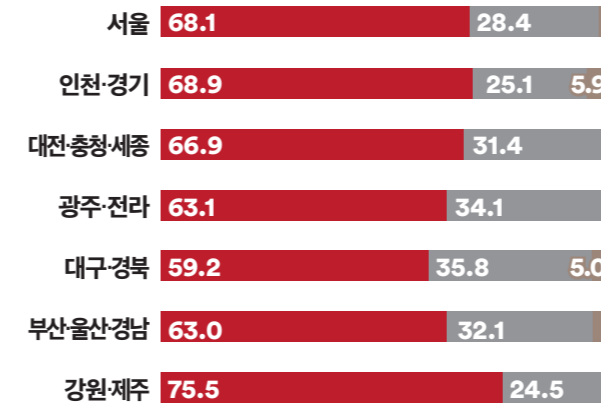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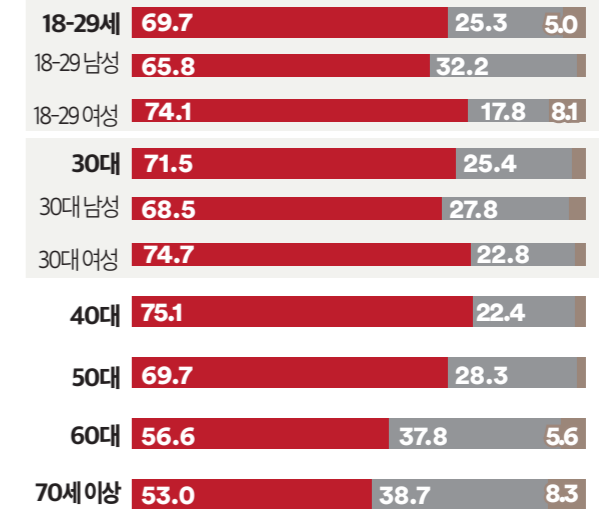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의 해법안이 '굴욕외교이자 친일행위' 라고 응답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모든 성·연령대·권역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앞섬
보수층은 CATI(공감 44.7% / 비공감 47.5%), ARS(공감 48.9% / 비공감 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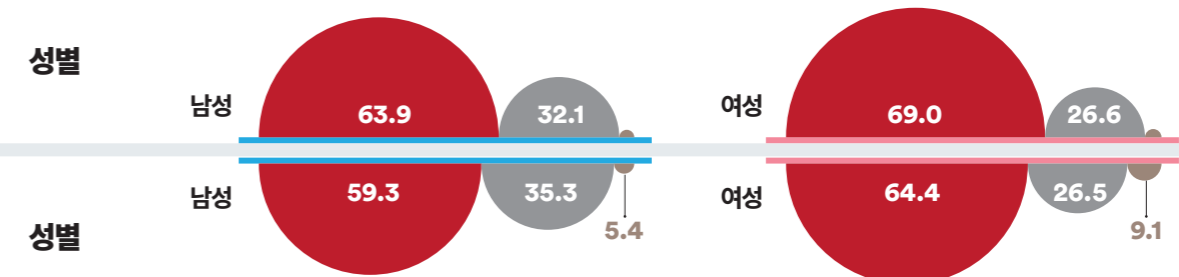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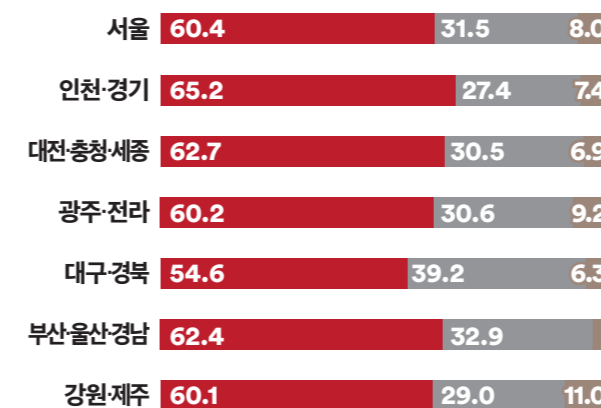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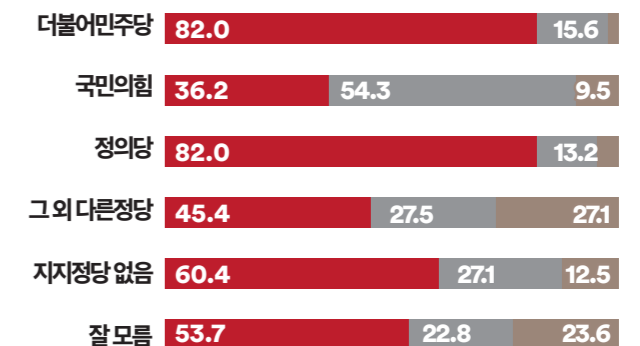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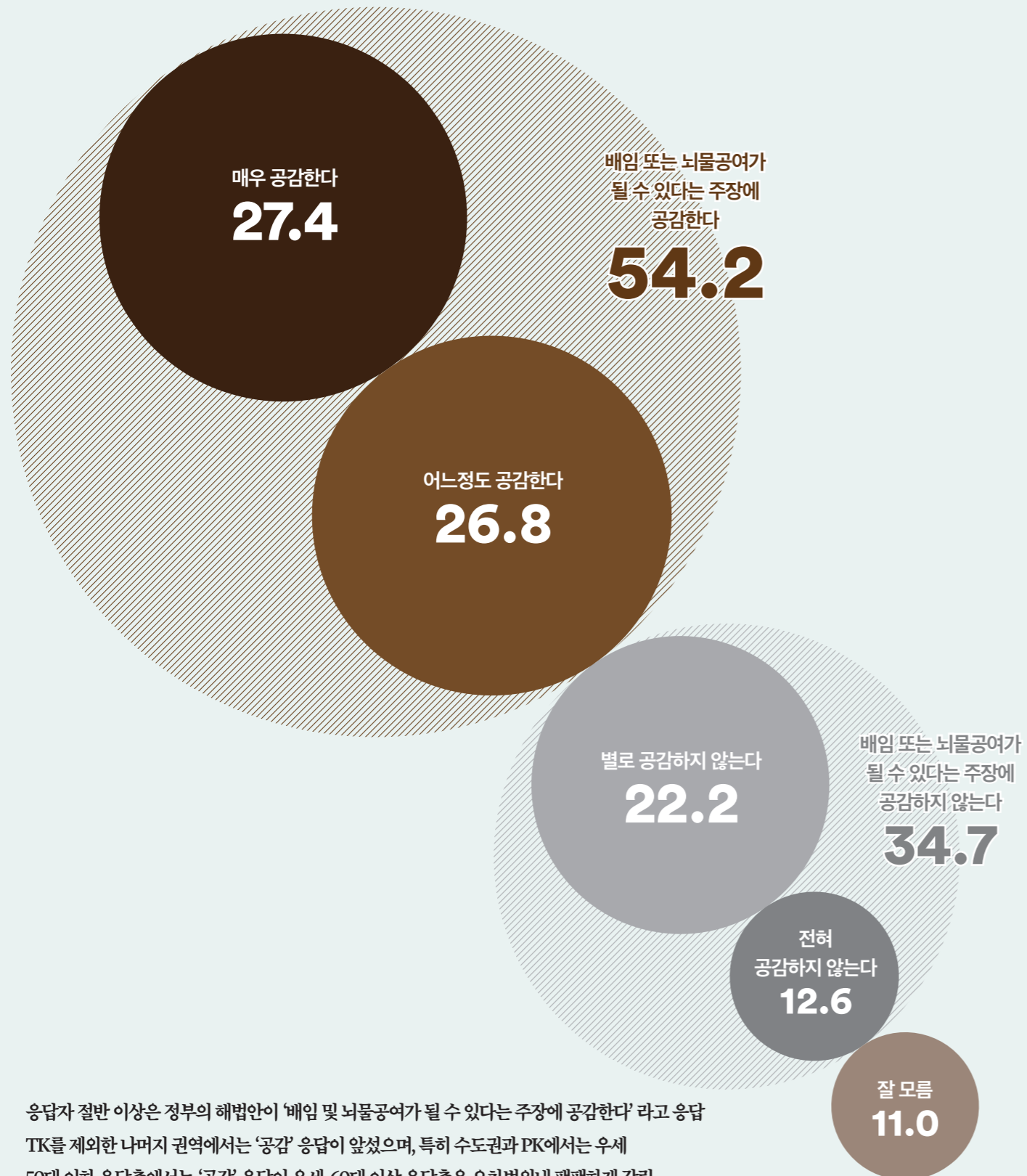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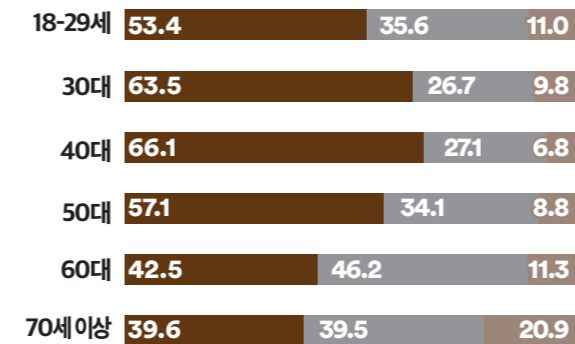
제3자 변제안 평가: 배임 및 뇌물 공여

Q. '제3자 변제'를 위한 민간기업의 기부는 배임 또는 뇌물 공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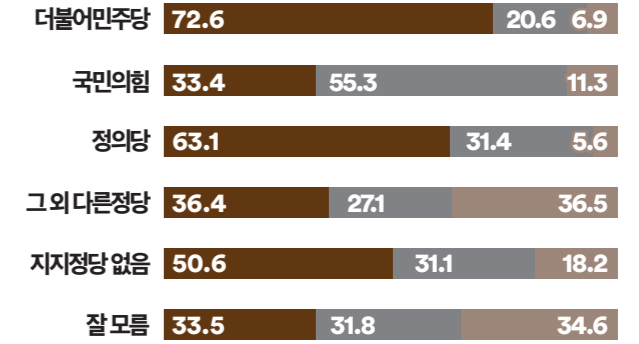


응답자 절반 이상은 정부의 해법안이 '배임 및 뇌물공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라고 응답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공감' 응답이 앞섰으며, 특히 수도권과 PK에서는 우세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공감' 응답이 우세, 60대 이상 응답층은 오차범위내 팽팽하게 갈림
보수층 (공감 42.0% / 비공감 49.8%), 무당층 (공감 50.6% / 비공감 31.1%), 중도층 (공감 59.0% / 비공감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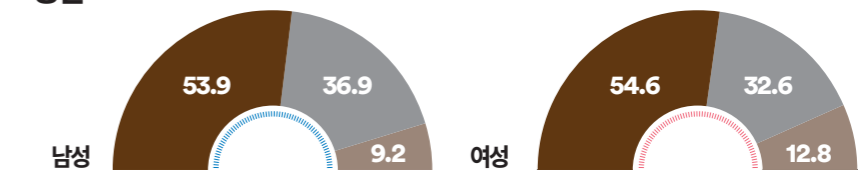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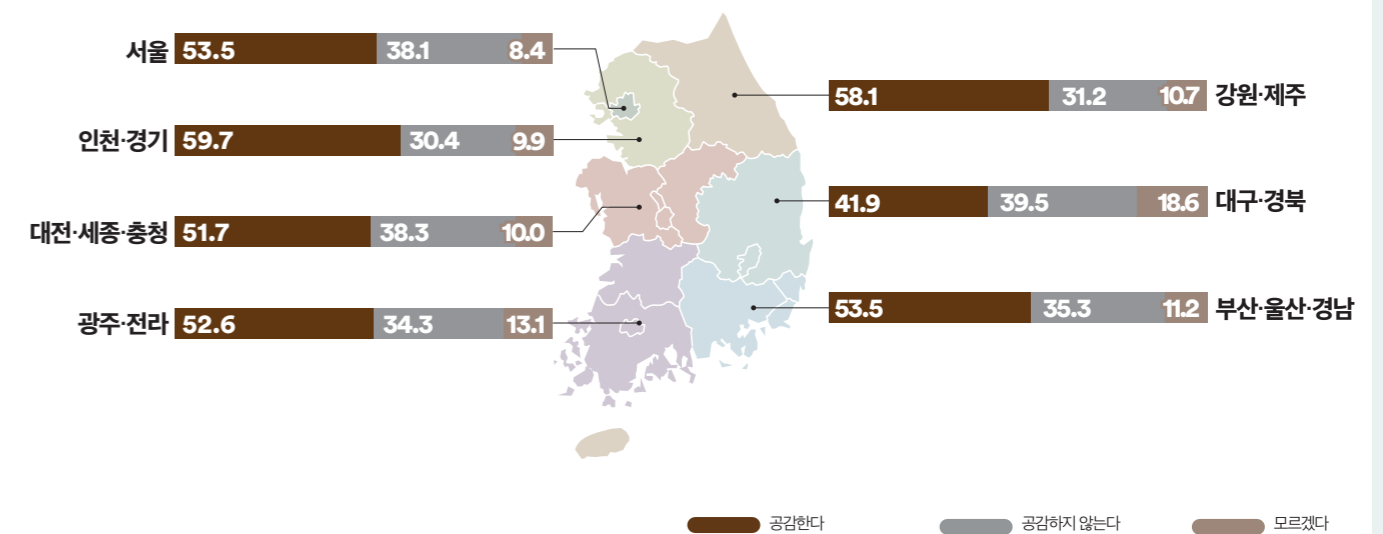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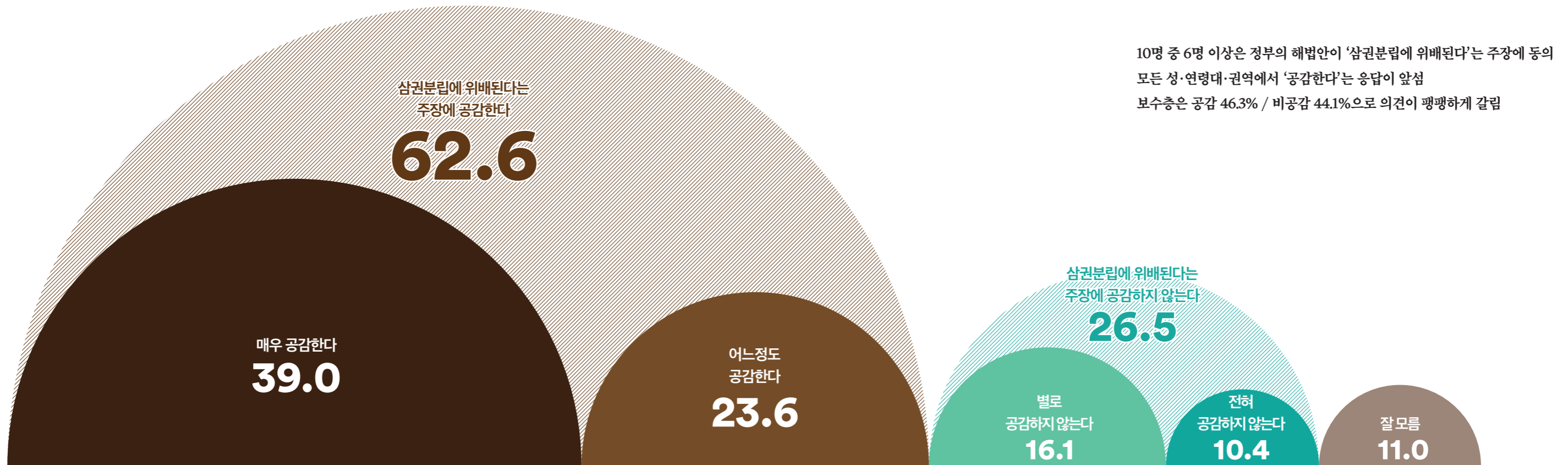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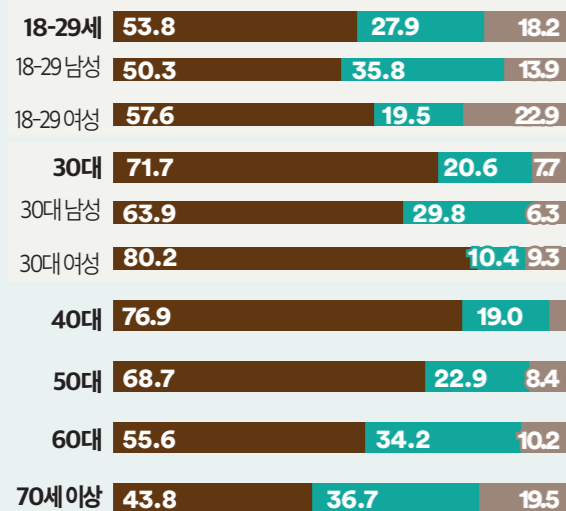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제3자 변제안 평가: 삼권분립 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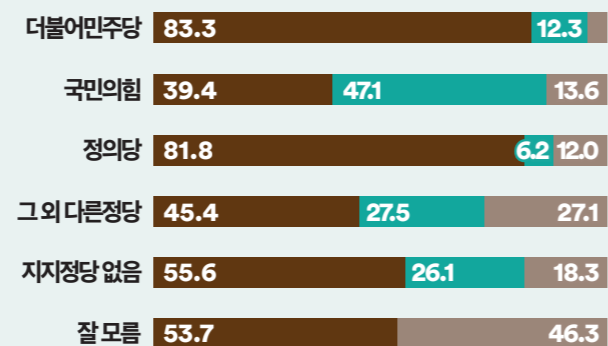
Q.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고 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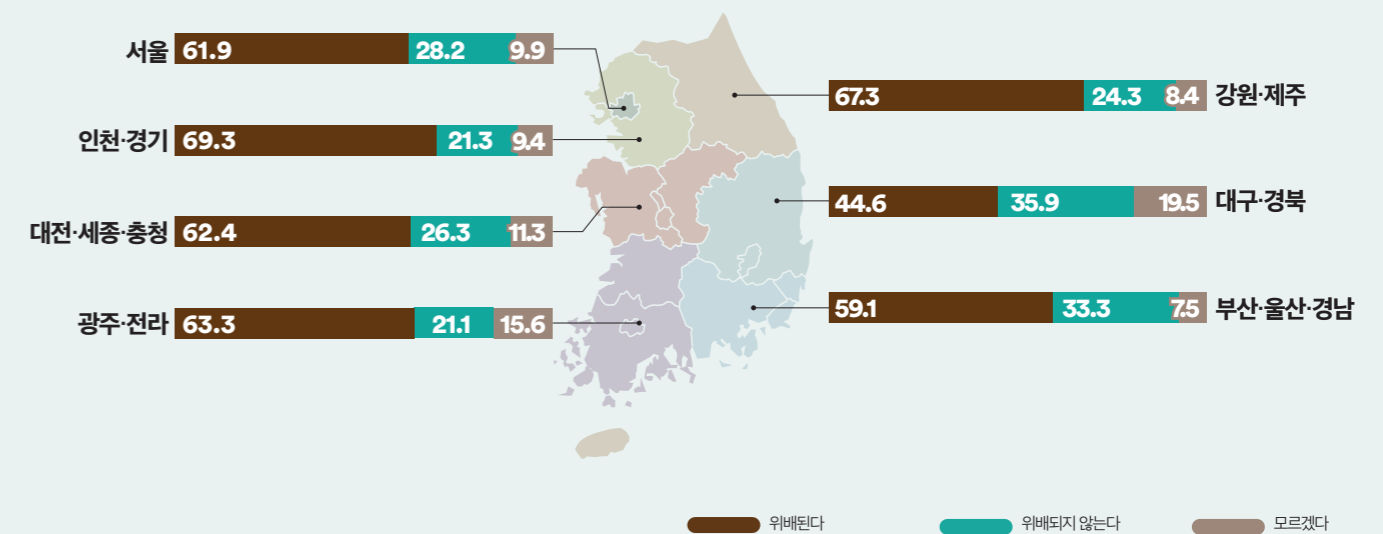
연령



정당지지도



권역



정치·사회 현안

일본에 대한 윤 정부의 태도

Q. 윤 정부가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독도 문제에도 일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RS

제대로 항의하지 못할것이란
주장에 공감한다

63.2

매우 공감한다
48.3

어느정도
공감한다
14.9

제대로 항의하지 못할것이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31.6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4.2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7.4

5.3 잘 모름

4.8 잘 모름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5.9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4.8

어느정도
공감한다
19.6

제대로 항의하지 못할것이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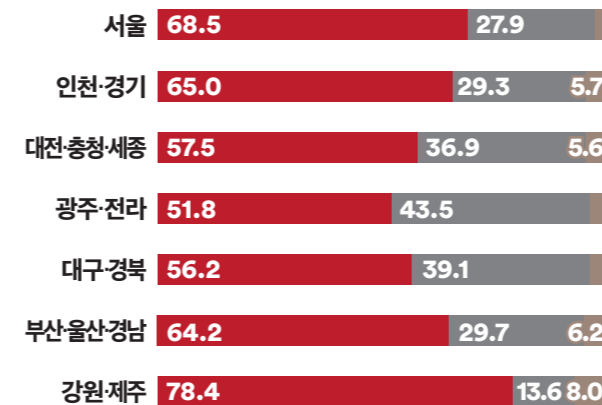
제대로 항의하지 못할것이란
주장에 공감한다

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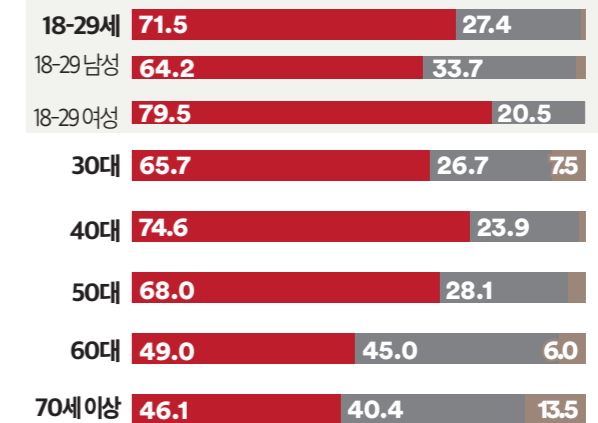
CATI 조사에서의 70세 이상 연령층(공감 38.3%, 비공감 50.5%)을 제외하면
두 조사의 성·연령대·권역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앞섬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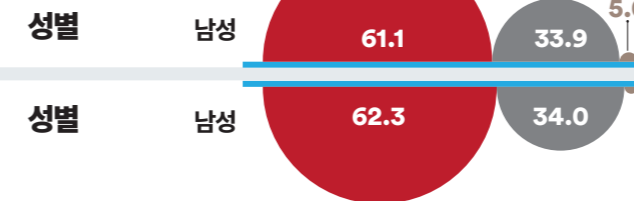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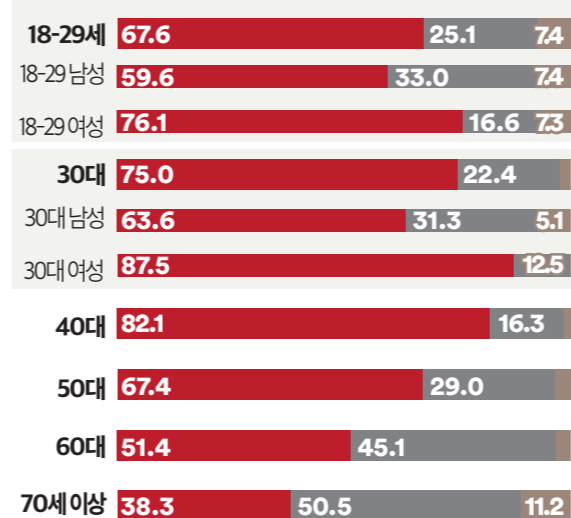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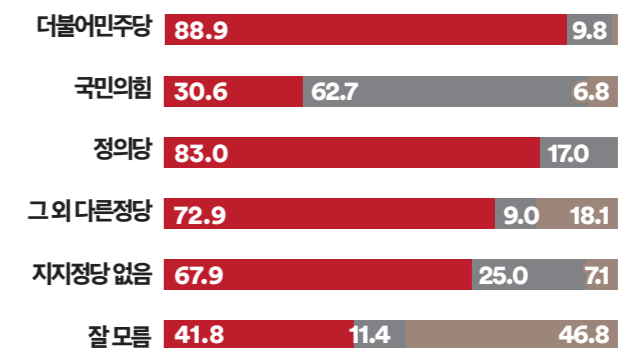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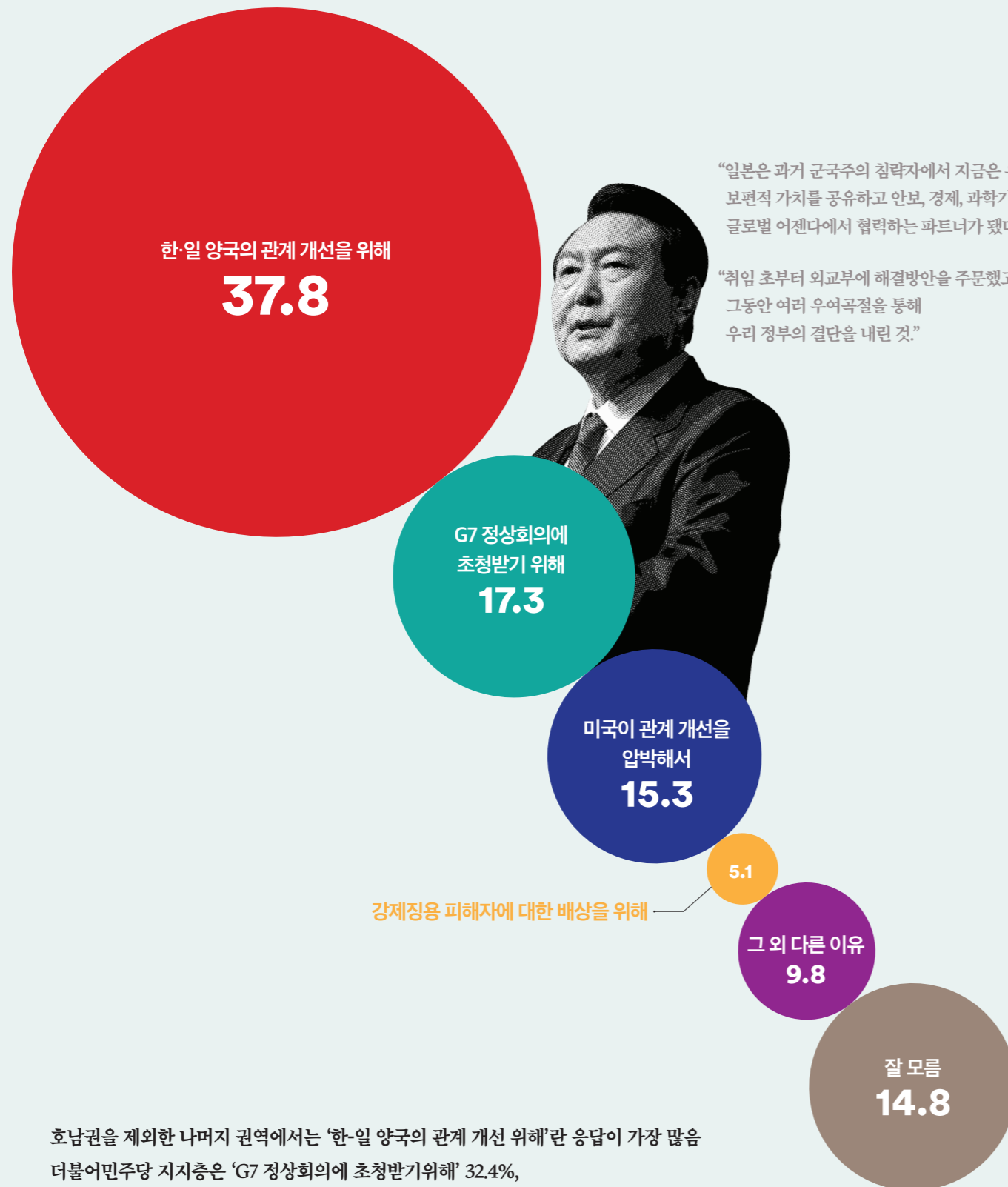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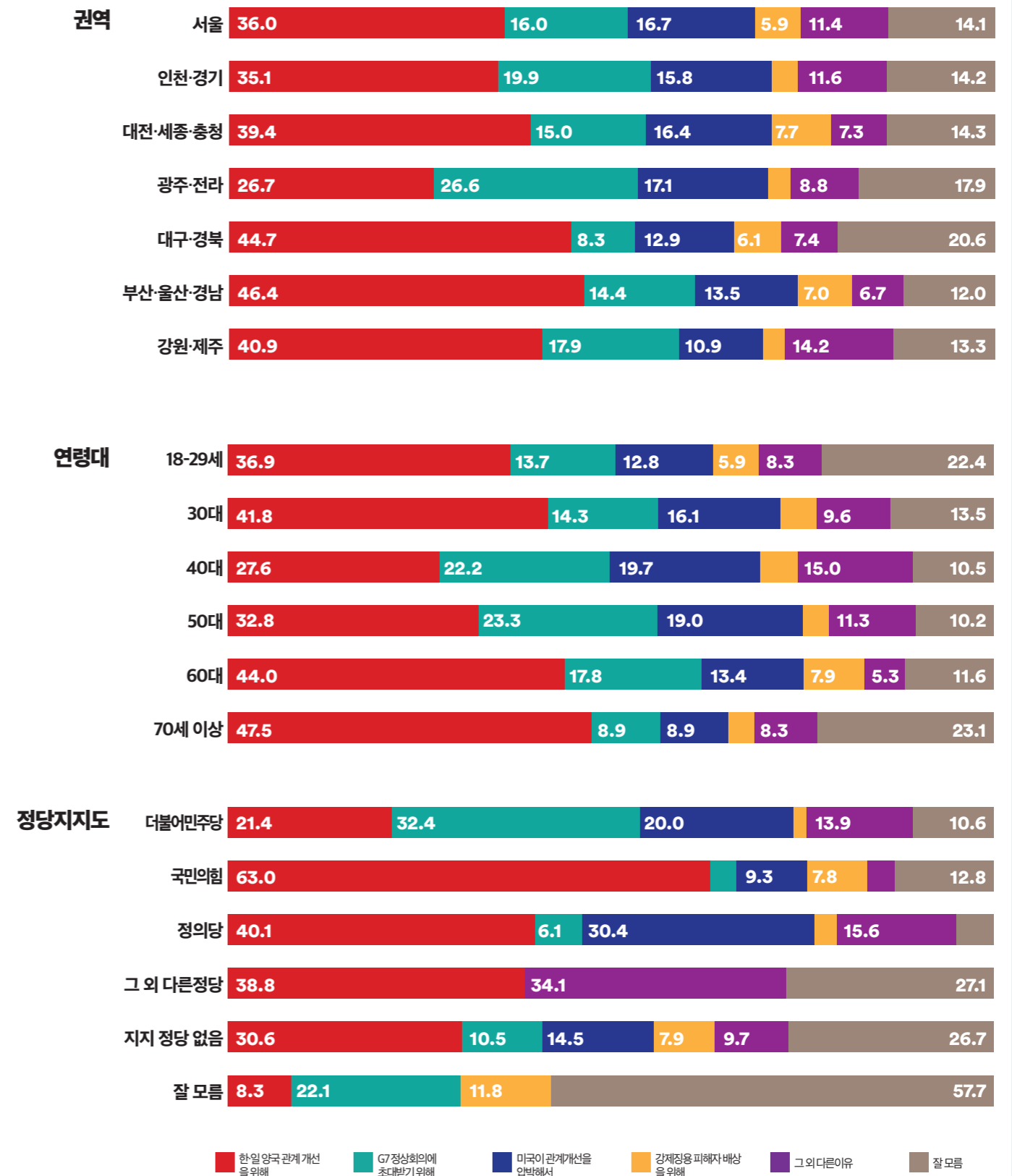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피해자가 반대하는 제3자 변제안 강행 이유

Q. 윤 대통령이 피해자의 반발에도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호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위해'란 응답이 가장 많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기위해' 32.4%,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위해' 21.4%, '미국이 압박해서' 20.0% 등 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위해'란 응답이 63.0%



여론조사꽃 제30차 정레이론조사 보고서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CATI

**정치·사회
현안**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 찬반
몰아쓰는 휴일, 현장에서 지켜질까

정부는 현재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칸막이를 월·분기·반기·연단위로 확대해, 주6일근부 기준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연장·휴일 근로 수당대신 휴가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 장기 휴가를 활성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개편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휴일 몰아쓰기’가 기업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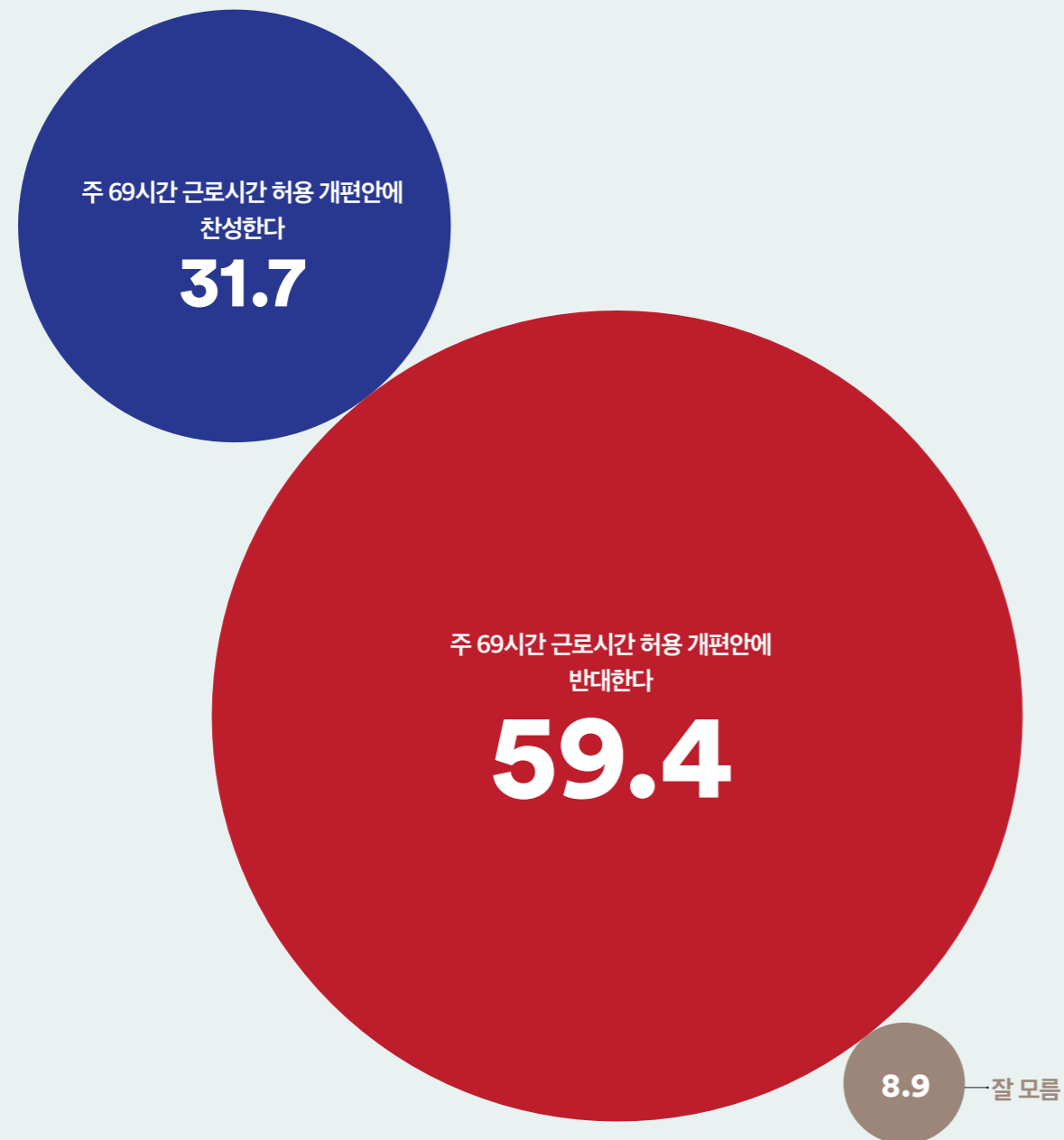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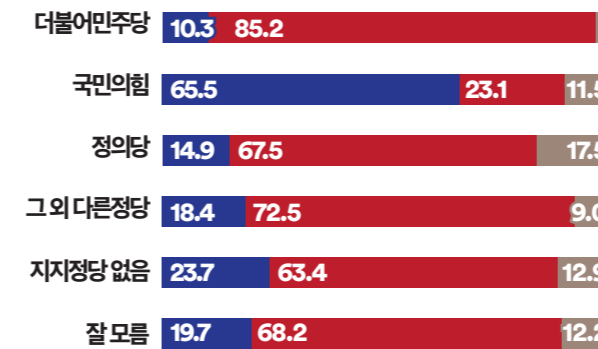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 찬반

Q. 주 69시간 근로시간 허용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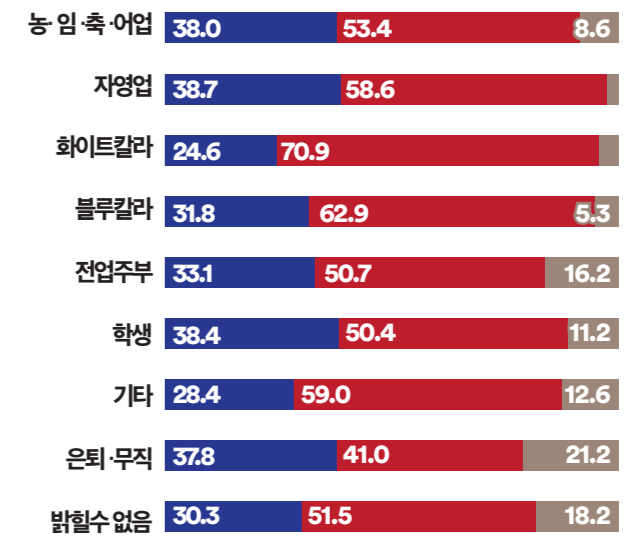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정도는 '주 69시간 근로시간 허용 개편안에 반대'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앞서고
수도권, 충청, 호남, 강원·제주 권역과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우세
진보층·중도층·무당층에서는 반대 응답 우세, 보수층에서는 찬성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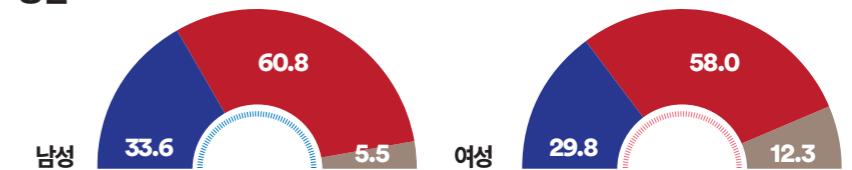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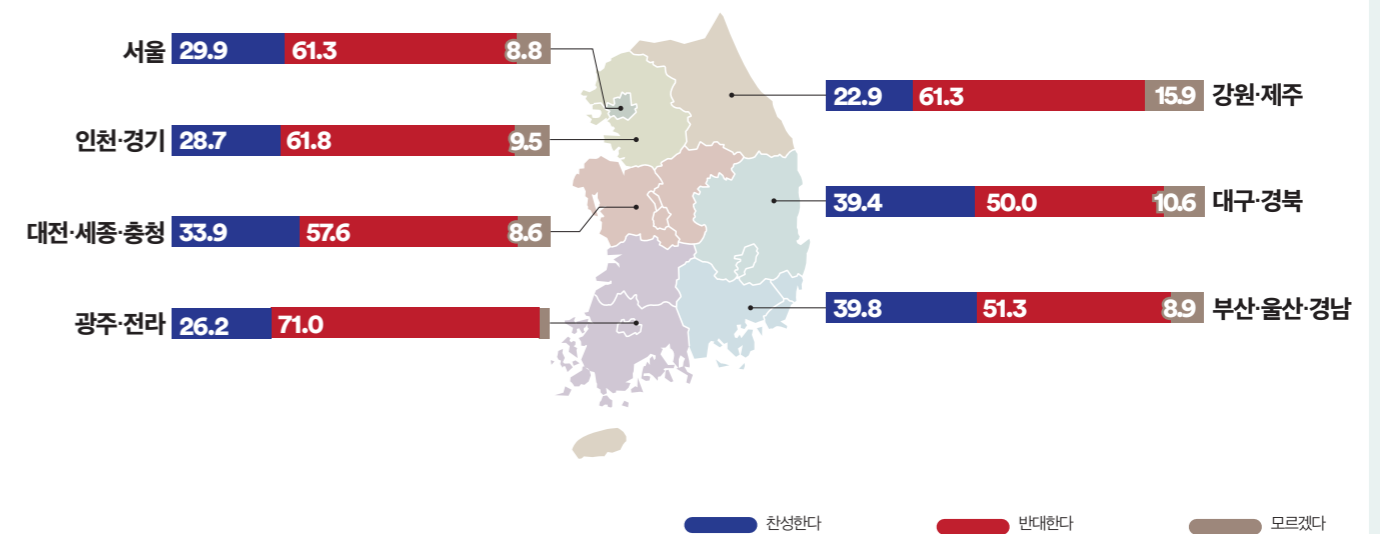
직업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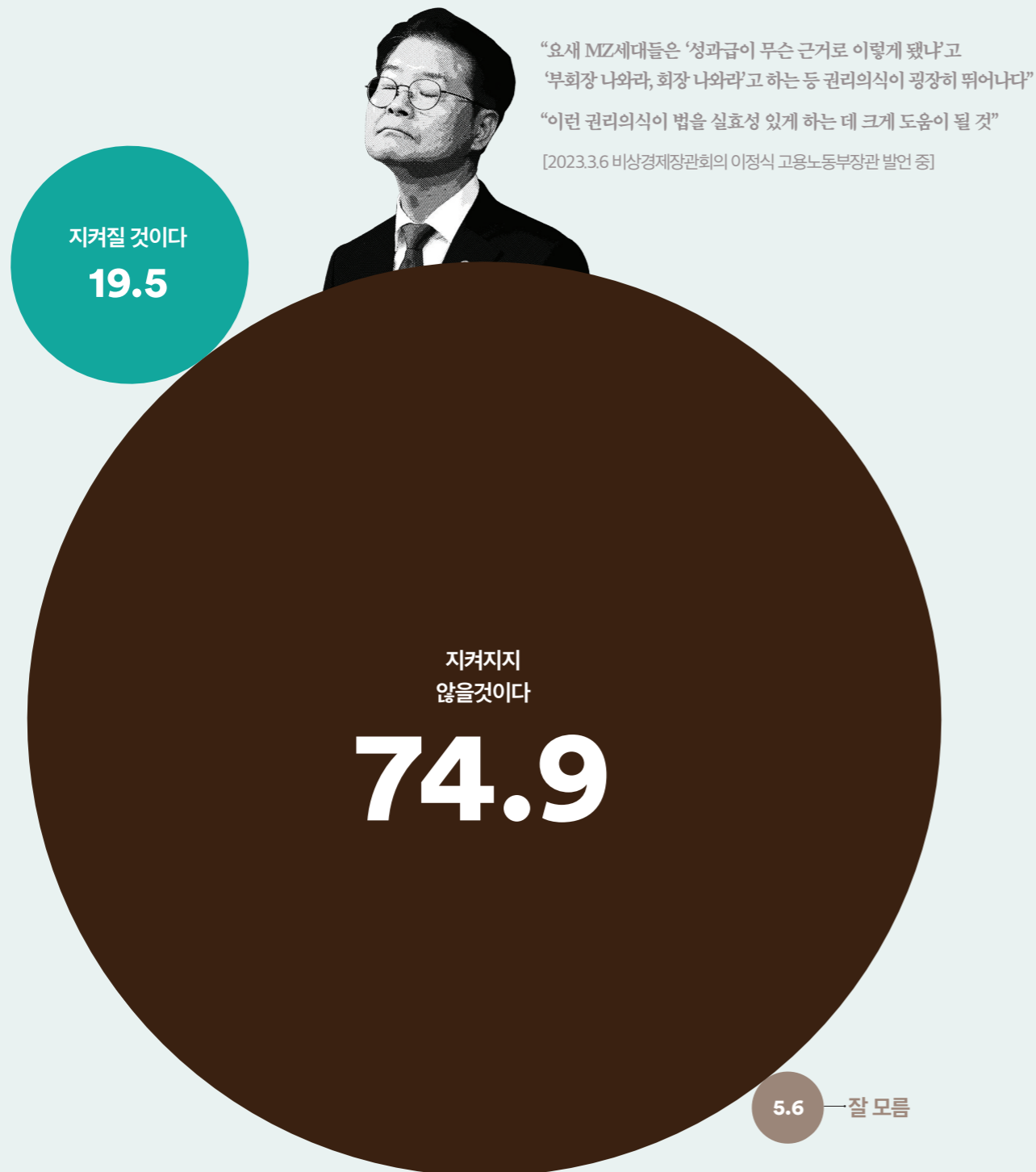
권역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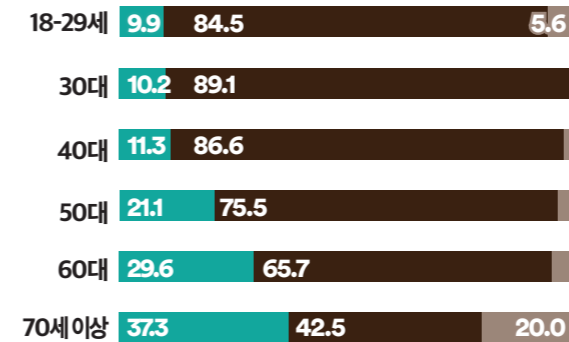
몰아쓰는 휴일, 현장에서 지켜질까

Q. 정부는 주 69시간을 일하고 휴가는 몰아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 현장에서 이것이 잘 지켜질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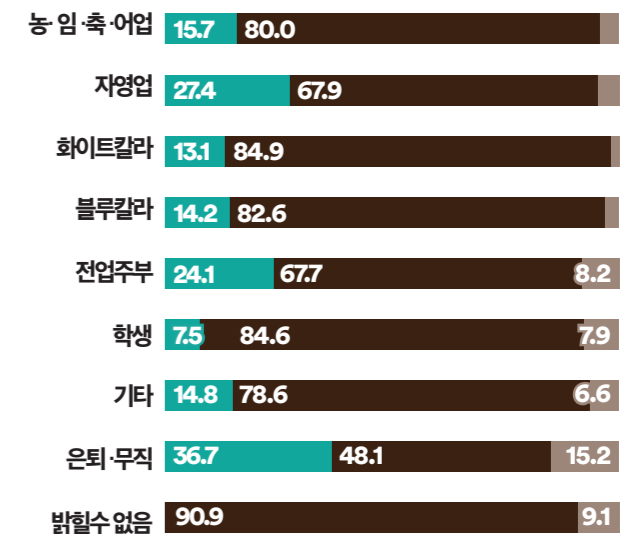


10명 중 7명 이상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이라 응답
모든 성·연령대·권역·이념별 변수에서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에서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켜질 것’ 45.8% vs. ‘지켜지지 않을 것’ 45.7%로 팽팽하게 맞섬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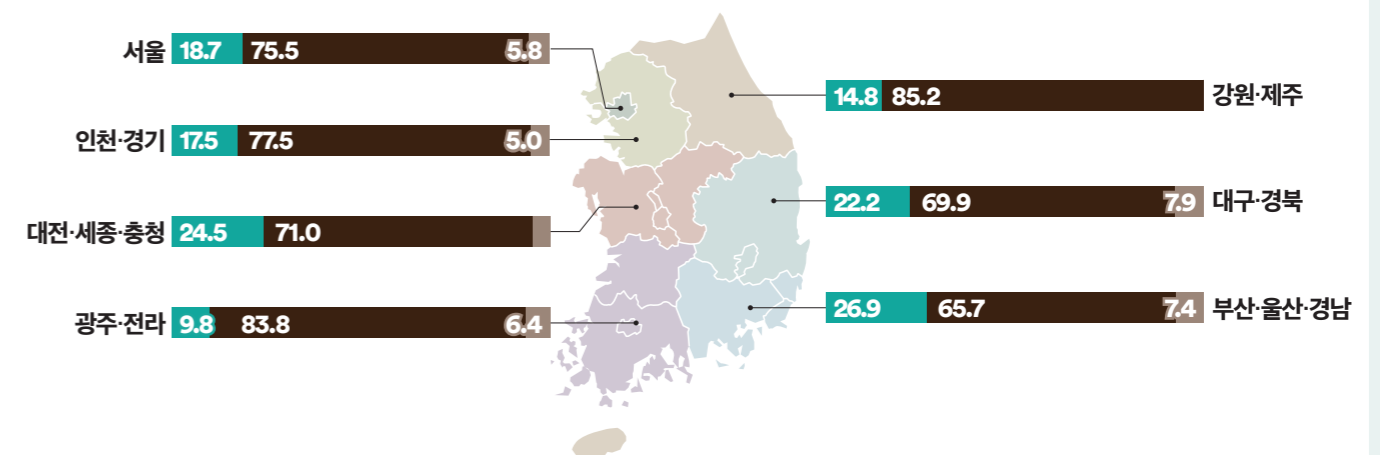
직업



성별



권역



지켜질 것이다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잘 모름

REPORT #202303_03

여론조사꽃 제30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콘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